



소프트볼 여자주니어 국가대표팀이 내달 한·일 교류전에 대비해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훈련 여건 완벽 “폭염 쯤이야”

소프트볼 女주니어대표팀 광주 세종고서 전훈

내달 1~5일 한·일 교류전 … 하루 6시간 구슬땀

소프트볼 여자 주니어 국가대표팀이 광주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대표팀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장충구장서 열리는 한·일 교류전을 대비해 세종고에 여름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광주에서 머무를 대표팀은 총 19명(선수 17명·지도자 2명)으로 선수들 모두 고교생이다.

대표팀은 이끌고 있는 윤현필 감독(현 세종고 감독)은 “훈련 시설도 좋고 맛깔 스런 음식과 편안한 숙소 등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이곳에 훈련캠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6일 훈련, 1일 휴식으로 하루

6시간씩 고강도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유연성·순발력 강화훈련과 수비·피침훈련을,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배팅훈련과 실전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주일에 2~3회 연습경기를 가지며 실전감각도 억혀오고 있다.

전국에서 고루 선발된 대표팀은 서울 신정여상(4명)·경기도 양일고(3명)·대전 디자인고(1명)·경북 구미정보고(3명)·경기도 일산정보고(2명)·충북 사대부고(2명)·광주 세종고(2명) 선수들로 구성됐다.

세종고에선 원혜련(특수)·강미(2루

수) 선수가 뽑혔다. 이들 두 선수는 지난 4월 회장기대회와 7월 미추홀기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팀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다. 원혜련은 최고구속 85km로 변화구의 제구력이 좋은게 장점이다. 강미는 두 득한 배짱으로 뛰어난 타격감각과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유망주이다.

대표팀 주장 하 정(양일고)은 “무더운 날씨와 고된 훈련에 힘들지만 선수들 서로 격려해주며 즐겁게 보내고 있다”면서 “특히 광주음식이 맛있어 매일 식사시간이 기다려 진다”며 쑥쓰러운 표정으로 광주훈련 소감을 밝혔다.

윤현필 감독은 지난 2006년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2007년 국가대표 코치 등을 역임하며 세종고를 전국 최강으로 이끈 명장이다.

또한 조홍준 코치(현 봉산중 코치)와 함께 팀을 이끌며 이번 교류전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동신고 정구 단체전 우승 ‘스매싱’

동신고 정구팀이 제45회 전국남녀중고정 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동신고는 10일 강원도 횡성 섭강코트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 구미고를 3-1로 역전승을 거두며 대회 평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동신고는 올 시즌 첫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동신고는 첫 복식경기에서 이정민과 박종훈이 상대 강선빈-백정도 조에게 3-4로 패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단식에서 윤성원이 강선빈을 3-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열린 세번째 경기에서 윤성원-박선호 조가 환상의 흐름으로 이기수-김성원 조를 4-1로 꺾으며 승기를 되돌려 놓았다. 동신고는 마지막 단식에서 이정민이 조영욱을 3-2로 제압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동신고 손영호 코치는 “사실 기량은 별차 이가 없었지만 조직력과 정신력에서 우리가 앞섰다”면서 우승 소감을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첨단고 류지훈-한찬우組 전국볼링 ‘금빛 스트라이크’

첨단고 류지훈-한찬우 조가 제14회 대구 시장기전국남녀볼링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류지훈-한찬우 조는 10일 대구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2인조전에서 2천530점을 기록, 대구계성고(2천430점)와 대구도원고(2천 391점)를 따돌리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남고부 개인전에선 최우선(첨단고)이 1천 467점으로 박종우(서울경북고)·1천 485점)에 이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구 분	일 정
•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9. 5(토)
• 수업기간	2009. 9. 4(금)~2010. 2. 27(토) (6개월/24주)
• 수 강 료	₩298,000

• 모집인원 : 1단계 금요일/토요일 반 선착순 각 20명
• 수업시간 : 매주 금, 토요일 9:10~13:00
•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발급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 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 개설 가능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 (062)950-3584, 3585
- H.P: 011-614-416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2009년 제3기)

•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8. 31(월) 9:10
오후반 2009. 8. 31(월) 13:4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31(월)

• 수업기간

2009. 8. 31(월)~2010. 2. 8(월)

(6개월/24주)

• 수 강 료 : ₩300,000

• 모 집 인 원 :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30명

• 수 업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2:40~17:30

•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립대학 평생 교육원 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및 학원 개설 및 강사 추천

• 각급 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062)530-3873~5
- H.P 010-2611-1171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팀은 졌지만… 박지성 주전경쟁 이상무!

헬시전 75분간 맹활약, 퍼거슨 감독 신뢰 받아

‘산소 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 대한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다.

9일(한국시간) 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유와 FA컵 팀파인 웨스턴 커뮤니티실드 대결이 펼쳐진 영국 런던의 웨블리스타디움.

2009-2010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1주일 앞둔 최고의 빅매치라는 점에서 퍼거슨 감독의 ‘베스트 11’ 선택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날 퍼거슨 감독은 최대 관심사인 미드필더 진 쪽 날개에 루이스 나니와 박지성을 배치했다. 대신 베테랑 라이언 끄스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발렌시아는 교체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 미

드필더로는 마이클 캐릭과 대런 플래처가 호흡을 맞췄다.

오언이 ‘조카’ 투입을 위해 벤치를 지킨 가운데 웨인 루니와 디미트로 베르바토프가 투톱으로 공격 쟁투마차로 나섰다.

지난달 31일 바이에른뮌헨(독일)과 친선경기에서 잇따라 결장했던 박지성은 퍼거슨 감독의 특명에 따라 호날두의 단골 자리였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해 중앙까지 넘나드는 사실상 ‘프리룰’ 일부를 수행했다.

박지성은 후반 22분 나니가 빠지고 발렌시아가 교체 투입되자 왼쪽으로 자리 를 옮겼다. 나니보다 경쟁 우위를 확인한 셈이다. /연합뉴스



10일 경북 안동시 강변구장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예선리그에서 서울 보인고의 이학민(9번)이 경남 통영고 골문을 향해 헤딩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리틀 태극낭자’ 6년만에 월드컵 간다

U-19 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中 1-0 꺾고 본선행 티켓 확보

한국 여자 19세 이하 청소년축구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이로써 대회 결승까지 나아가 2004년 중국 대회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또 최소 준우승을 확보해 내년 7월 독일에서 열릴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본선 출전도 확정지었다. 한국이 FIFA U-20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은 2004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번 대회 3위 팀까지 내년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한국은 준결승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 북한을 1-0으로 꺾은 일본과 12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룬다. /연합뉴스

중국 골문을 갈랐다.

북한에 이어 A조 2위로 준결승에 올랐던 한국은 이로써 대회 결승까지 나아가 2004년 중국 대회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또 최소 준우승을 확보해 내년 7월 독일에서 열릴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본선 출전도 확정지었다. 한국이 FIFA U-20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은 2004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번 대회 3위 팀까지 내년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한국은 준결승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 북한을 1-0으로 꺾은 일본과 12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룬다. /연합뉴스

11월(화)

▲MBC 꿈나무축구 CL결승전(11:20·MBC ESPN)

▲2009 실업연맹회장기 양궁대회(14:10-KBS1)

▲한일 대학축구 친선경기(한국대학선수권대회)(14:10-KBS1)

▲아시아 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여자축구선수권대회(16: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삼성: 히어로즈>(18:10-KBS 스포츠)

▲2009 KBO리그<롯데: KIA>(18:20-MBC ESPN)

▲2009 LG 프로야구<SK: LG>(19:00-SBS스포츠)

다이아몬드 링

마그마

남성들이여,
당당해져라!

“현대 남성들의 고민, 37%↑ 507%↑”
1. 외소하다. 2. 빠르다. 3. 힘이 있다.

“현대 남성들은 생활광선, 열선, 생물의 빛이라 알려진 원색의 선의 흡수 부족한 문제로 인해 체온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1. 외소하다. 2. 빠르다. 3. 힘이 있다.
마그마